인공호흡기 재부착 석선장 폐기능 회복중

생포해적 수사 사실상 마무리…아라이 총격입증 주력

지난 3일 의식을 일시 회복했다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호흡장치를 재부착한 채 치료를 받고 있는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의 폐 기능이 서서히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6일 "유희석 병원장과 외상외과 등 6개과 의료진이 오늘도 2차례 회진했다"며 "하루 3~4차례 x-레이를 찍는데 폐부종과 폐렴의 회복 기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석 선장이 기관튜브(호흡관)와 인공호흡기 재부착 후 혈압과 맥박, 체온, 소변량, 혈소판 수치 등에서 안정적인 활력징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석 선장이 치료 중인 중환자실을 찾은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은 기자에게 "석 선장의 폐에 찬 물이 잘 안 빠지고 있다"면서도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석 선장의 폐렴과 폐부종 치유에 전력한 뒤 2~3주 내에 폐 기능이 호전되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희석 아주대병원장은 "석 선장의 폐에 직접적인 외상이 없지만 많은 부상과 주변 환경(폐 기능에 부담을 주는 진통제 투여 등)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며 "2~3주 이상 석 선장의 의식이 깨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석 선장은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지 5일 만인 지난 3일 오전 8시32분 자가호흡을 하며 의식을 회복했으나,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4일 새벽 3시20분부터 기관튜브를 재삽관하고 인공호흡기를 다시 단 채 무의식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생포한 해적 5명을 수사해 해상강도살인미수와 선박납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8일간의 수사에서 삼호주얼리호 납치 상황과 납치 후 선원 억류, 선원 폭행과 살해 위협, 몸값 요구, 청해부대 구출작전 때 총기 대응 등 '선박 납치~구출작전' 전 상황을 한국인 선원 피해조사와 해적 조사에서 대부분 구증하고 혐의입증에 필요한 물증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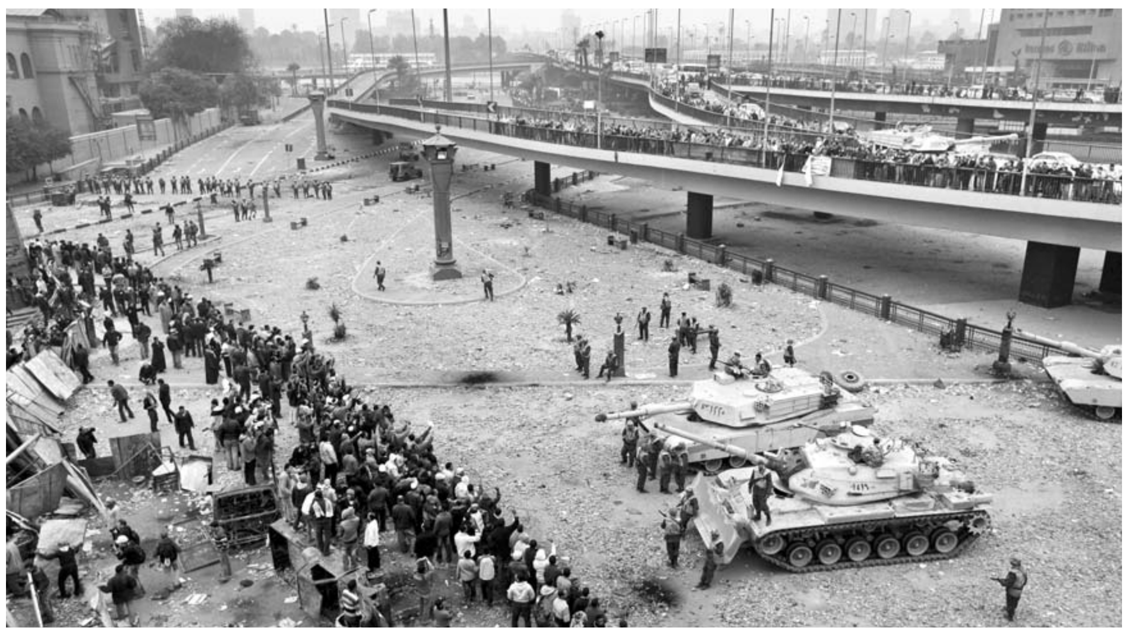
문제는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해적을 밝혀내는 것. 수사본부는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7일 오후까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가릴 수 있는 물증을 찾아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라이가 여전히 석 선장 총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가리는 일은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사본부는 7일 오후 사건기록을, 8일 오전 해적 5명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바마·반기문 "무바라크 즉각 물러나야"

이집트 野 권력이양 방법 분열

美정부 정보능력 한계 노출



5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 입구에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려는 육군과 반정부 시위대가 맞서고 있다. 오른쪽 다리 위에서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집트의 권력 이양 작업이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격렬해지는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권력이양을 촉구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오는 9월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집트 야권은 권력이양의 방법론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혼란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권력이양을 촉구했다. 3일 런던을 방문한 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폭력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반 총장은 모든 세력에게 자제와 협상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무바라크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TV 연설에서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러나 대선 전까지 남은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며 시위대의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이집트 집권 여당인 국민민주당(NDP) 지도부는 5일 총사퇴했으나 무바라크 대통령은 국민민주당 당수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국영TV는 이날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 유력 야권 인사들을 만나 현행 헌법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스스로를 '현자협의체(The Council of Wise Men)'로 칭하고 있는 야권 단체는 술레이만 부통령이 과도정부를 이끌며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차기 대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상황에서 치러질 것이라며 먼저 새로운 의회를 구성해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권력이양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권력공백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최근 이집트 반(反)정부 시위와 관련한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외교정책과 정보력에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집트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내 입장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보기관의 분석력도 도마위에 오르는 등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 어린이집' 9천곳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가 야간에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원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올해 예산이 536억원으로 작년보다 128억원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작년 6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6409곳의 어린이집이 지정돼 있으며 시간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도 3만2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예산증액과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시간연장이 가능한 어린이집도 올해 900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예비노인 93% "자녀와 안살겠다"

독거노인 급증 예상

예비 노인의 대다수가 노후에는 부부끼리, 또는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독거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 노인층 4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후에 부부끼리, 또는 혼자서 거주할 것이라는 답변이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아들이나 딸 등 자녀와 함께 살기는 희망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부부끼리 생활하다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독거의 형태로 전환되는 유형이 노년기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청은 독거노인 가구가 2010년 102만가구에서 2020년 151만가구, 2030년 234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매 조기검진 대상 연 4만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 대상을 연간 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치매 조기검진은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한 다음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거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검진 대상이 3만2000명이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47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8%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22%에 불과한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환자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제도를 도입,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9개월 동안 매월 3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숫자로 본 이집트 사태

사망 300명·한국인 등 기자공격 65건

경제손실 31억$·무바라크 재산 700억$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5일(현지시각)로 12일째에 접어들었다.

미국 CBS뉴스 인터넷판은 4일 숫자를 통해 이번 시위의 다양한 양상들을 조명했다.

우선 사상자 규모를 보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이집트 전역에서 300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최소 5000명을 기록했다.

최근 벌어진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의 충돌로 숨진 사람들은 최소 10명이며 기자들이 붙잡혀 가거나 공격당한 사건은 적어도 65건이다. 연합뉴스 특파원 2명은 지난 3일 광장 근처에서 취재하던 중 청년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했고, 다른 한국 방송사 기자도 이날 낮 시내로 들어가려다 카메라를 빼앗겼다가 되돌려받았으며 한 기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SBS의 현지인 카메라 기자도 프레스센터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나오다가 친무바라크 시위대에 둘러싸여 항의와 함께 구타를 당했다.

시위를 피해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번 시위 기간 이집트를 떠난 관광객은 100만명으로 추산되며 16만명에 달하는 이집트 거주 외국인들도 이집트를 떠났다.

시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

프랑스 투자은행 크레디 아그리콜은 이번 시위로 인한 이집트의 경제 손실 규모를 31억달러로, 일일 경제 손실 규모는 3억1000만달러로 추산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 폐쇄가 초래한 경제 손실 규모는 9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번 시위로 주요 석유 수송로인 수에즈 운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지난주 배럴당 75달러에서 100달러로 치솟았다.

무바라크 대통령의 축재 규모도 막대했다. 무바라크 일가의 재산은 모두 400억~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집트의 GDP가 약 200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규모다.

금요기도회 이후 카이로 도심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최소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카이로 전역에서는 100만명이 거리로 나왔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연합뉴스